

매하구 바비큐축제마당으로 감시다!

2024 매하구시바비큐축제 개막... 10월 7일까지 이어져



매하구시바비큐축제의 한 현장—매하구시 해산물광장 야시장

2024 매하구시바비큐축제가 일전 매하구시 산수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10월 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산수 바비큐축제를 찾아 이 여름의 낭만과 청량함을 즐기자”를 주제로, 매하구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매하구 바비큐 브랜드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높이며 관광객들에게 ‘바

비큐 + 연애 + 맥주’의 여름철 풍부한 체험을 더해주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매하구시신발전료식그룹이 투자하여 설계한 바비큐축제는 총 2만평방미터의 면적에 190개의 테블을 설치, 동시에 800여명을 접대할 수 있으며 바비큐, 맥주, 청량음료, 가무를 일체화한 신형 바비큐 료식광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바비큐축제의 개막과 아울러 해룡호맥주광장, 해산물광장 야시장도 오픈했으며 바야흐로 매하구시 문화관광 광장의 제품 전시활동, 매하구시 우수 농특산물 전시활동 등이 이어진다. 매하구시신발전료식그룹 책임자는 “단오, 칠석, 추석 등 명절에 맞추어

관련 주제의 민속가무, 모델쇼 등 활동도 전개하여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알심들이 야간 소비 집중구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다원적 수요를 만족시키며 매하구 문화관광의 새로운 경제성장극을 전격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림일보

1분기 내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85.5%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 내수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85.5%, 그중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기여율은 73.7%에 달한다. 4월까지 소비와 투자 영역은 총체적으로 회복 태세를 유지해왔다. 4월 화물 수입액이 지난 동기보다 12.2% 증가, 수출액 증속보다 현저히 높은바 내수가 반등하는 양호한

태세를 반영한다. 생산량에서 보면 4월 규모이상 공업의 생산판매율은 97.4%로 계속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 전망치를 보면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중 신규 주문지수는 51.1%로 여전히 확장 구간에 있는바 제조업 분야의 시장 수요가 계속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신화사

외자기업 70% 이상 경영환경에 만족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현지 신뢰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변인 조평은 1분기 약 600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중 70% 이상이 향후 5년내 중국 시장 전망을 낙관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중 과반수는 중국 시장의 매력에 전달 대비 상승(2.9%)했다고 평가했다. 외자기업은 중국의 경영환경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반수 응답자는 향후 5년간 대 중국 투자 리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같은 기간 유럽계 외자기업이 예상하는 리익 증가율은 60%에 육박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신화넷

또한 올해 대 중국 투자 확대 의향이 있는 외자기업 비율도 전달에 비해 2.1% 늘었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한 외자기업의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표에서 ‘만족’ 이상 평가를 받은 비율은 지난해 4분기보다 상승했다. 사업장 취득, 수속 처리, 시장 진입 항목에 ‘만족’ 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90% 이상에 달했다. 조평은 올 1분기 이후 경제안정, 개방촉진, 외자유치 등 여러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중국의 양호한 투자 환경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 외자기업의 대 중국 투자 신뢰도를 강화시켰다고 분석했다. / 신화넷

전 4개월 전국 온라인 소매액 4조 4,100만원

지난 동기 대비 11.5% 증가

상무부 전자상거래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전국 온라인 소매액은 4조 4,100만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11.5% 증가했다. 그중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이 3조 7,400만원으로 11.1% 증가, 사외 소비품 소매 총액의 23.9%를 차지했으며 화물무역 수출에서의 다국전자상거래 수출 비중이 안정적으로 높아졌다. 올해 들어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하여 상무령의 디지털화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 성장을 촉진하며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상무부는 <디지털 상무 3개년 행동계획(2024-2026년)>을 제정하여 디지털 상무를 발전시키는 5가지 중점행동을 전개하고 2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세분화하여 상무발전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수준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인터넷 소비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했다.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제6회 브랜드 품질 소비 인터넷구매촉진을 개최하여 각지에서 디지털 생활 추구,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의 무역 글로벌, 디지털화, 지능화로 시장 잠재력 발굴 등 3대 주제를 둘러싸고 230여회의 활동을 전개, 브랜드 품질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키는 데 진력하여 활동 기간 전국 인터넷 소매액이 12.1% 증가했다. 디지털, 녹색, 건강류 상품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 4개월간 통신기자재, 에너지절약 가전제품과 체육오락용품은 각각 20.2%, 15.5%, 21.6% 증가했으며 인터넷 서비스 소비액 증가 속도도 25.1%로 총체적 소비액 성장보다 빨랐다. 그중 온라인 관광 소비액은 77.6% 증가했으며 신중식(新中式) 관광, 현성관광, 해외 관광이 각광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보상교환구매’ 시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4월 가전과 가구 인터넷 매출은 각각 지난 동기보다 9.3%, 12.2%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 현재까지 우리 나라는 31개 나라와 량자 전자상거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상해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선행구 건설의 진전이 양호하여 38개 시범 조치중 36개가 가동 실시되었다. / 인민넷

123 개 나라 (지역) 514 개 항구 연결하는 서부륙해 신통로

중국 서부륙해 신통로 물류망이 세계 123 개국 (지역) 의 514 개 항구를 연결하고 있다. 서부륙해 신통로는 서부 성과 아세안 회원국이 협력해 구축한 국제 육해 무역 신통로로 중경을 운영센터로 하고 서부 성, 자치구, 시를 핵심지역으로 한다. 철도, 해운, 도로 등 운송 수단을 리용해 남쪽으로 광서, 운남 등 연해 국경지역 통상구를 거쳐 세계 각지로 연결되는데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수출항로보다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중경시정부 통상구물류판공실에 따르면 1분기 서부륙해 신통로 리

근 성 지역 플랫폼 기업이 운영하는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 다국간 도로 리용 화물차, 국제철도 복합운송 열차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총 16만 9,900TEU로 지난 동기 대비 26% 증가, 화물 가치는 187억 1,200만위안으로 27% 확대됐다. <서부륙해 신통로 총체적 계획> 시행 후 5년간 서부륙해 신통로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의 운행량은 2019년의 900여편에서 2023년 9,000여편으로 증가했다. 화물 품목도 세라믹, 판재 등 몇십종에서 자동차 부품, 신에너지 자재 등 1,000여종으로 늘었다. / 신화사



광서광자치구 흥주시 남부 흥주 (钦州) 항 부두에 정박한 외항선들이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왕청현 농민 775 가구 시내 아파트 분양받아

왕청현 ‘증감연결’ 빈곤부족 이주 건설 5기 프로젝트 분양 추진

9개 향진, 75개 촌과 마을, 립장과 독립 부지 및 4,921 가구 이주와 관계되고 344.97헥타르 경작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인 왕청현 ‘증감연결’ (增減掛鉤) 빈곤부족 이주 건설 5기 프로젝트가 일전 주택 분양 전단계 작업으로 번호 쥐기 및 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주택을 분양받는 대상에는 빈곤부족 이주 농민 775 가구가 포함되었다.

‘증감연결’은 토지 리용 총체적 계획에 따라 경작지로 재개간할 약간의 농촌 건설 용지와 도시 (城鎮) 건설에 사용하기로 설계된 부지 등 면적으로 공동히 ‘건설철거’ (建新拆旧) 프로젝트 구역을 구성해 최종 건설 용지 면적은 증가하지 않고 경작지 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며 질이 내려가지 않고 도시와 농촌 용지 배치가 합리한 목표를 실현하는 자원 (資源) 보상 기제이다. 왕청현 ‘증감연결’ 빈곤부족 이주 건설 5기 프로젝트 주택 분양 번호 쥐기 및 추첨 행사 현장에 왕청현자연자원국, 왕청현공증처, 각 향진 촌과 마을 및 흥청토지개발유한회사 대표가 동참해 공평, 공정, 공개적인 진행을 견조했다. 라자구진 하남촌에서 온 장지암농민은 “분양 번호 쥐기와 추첨 방안,

아파트 정보, 분양 절차, 후속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들었어요. 그 래도 이런 추첨 분양 방식에 대해 인정하는 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동방형성아파트단지에 대해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가 진행된 지 1시간 만에 장지암 등 775 가구 농민이 기쁜 마음으로 시내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 연변뉴스넷

공업정보화부 : 차량사물통신 전용 번호 1억개 계획

차량사물통신 전용 번호 1억개 계획

차량사물통신 전용 번호 1억개 계획

자동차에 전용 전화번호가 부여돼 인터넷 ‘서핑’은 물론 긴급 상황에도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5월 29일, 공업정보화부에 의하면 공업정보화부는 11 자리 공중 모바일 통신망 번호 1억개를 차량사물통신 업무에 전용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나라 차량사물통신 기술은 갈수록 스마트 교통 분야의 핵심적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 보통 휴대폰 사용자가 휴대폰 SIM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스마트 사물통신 차량에 만약 전용 통신카드가 있으면 차량이 신속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런 전용 통신카드는 차량과 인터넷의 연결을 실현할 수 있어 승객에게 인터넷 오락 및 비상 상황 시 차량내 인명구조, 도로구조를 위한 음성 통신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풍부한 차량 사용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카드는 차량 사이의 교류를 강화하여 차량간 협동주행, 안전 조기경보 등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로교통안전성을 높인다. 차량사물통신 전용 통신카드는 차량과 백그라운드 디터 전송을 실현할 수 있으며 많은 차량 정보가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등 백그라운드 시스템에 모이면 스마트 출현의 발전을 추동하게 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절차에 따라 관련 기초통신기업에 차량 네트워크 전용 번호를 확인 및 할당하고 산업 발전 태세를 계속 추적하여 제때에 번호 자원을 보충하면서 정보통신업의 에너지 부여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스마트 사물통신 차량과 차량사물통신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양봉 과학기술뜨락 및 디지털화 시대 전망하는 훈춘 ‘양봉전문가’

훈춘시 양포만족향 연통라자촌이 꿀벌의 생장에 우월한 자연생태환경을 지니고 있는 우세에 입각하여 20여년간 양봉산업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농민 주체는 훈춘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양봉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전국 각지로 이동 양봉하다가 과학적 양봉 리념과 기술을 안고 2009년에 귀향하여 훈춘시양봉합작사를 설립해 나만의 브랜드를 육성, 고향 사람들을 이끌어 공동 치부하고 있다. 그는 “지금 양봉산업의 환절기에 과학기술이 스며들었다.”고 말한다. 그의 합작사에서는 지능별통을 도

입해들어 탈봉 (脫蜂) 시의 꿀 소모와 작업량을 줄이고 있으며 꿀을 도관으로 매우 편리하게 내리운다. 또한 길림양봉과학기술연구소로부터 지방 꿀벌 품종 - ‘훈춘흑꿀벌’을 들여와 부단히 품종을 최적화시켜 당지 기후에 대한 적응성, 과동 능력이 강해졌으며 생산량이 높고 품질이 향상되었다. 그만큼 합작사의 꿀 인지도도 높아졌다. 그는 해마다 주동적으로 100명의 양봉농들을 자신의 농장에 초청해 참관시키면서 기술을 전수해왔으며 양봉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에게도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가농업과학원, 성양봉과학기술연구소, 연변양봉관리소 등 양봉과학기술연구단위 전문가를 훈춘에 초청, 양봉 기술양성훈련반을 수차 마련해 연인원 5,000여명이 강습을 받게 했고 고향의 꿀벌농장을 300여차나 찾아가 기술을 전수해주어 양봉농들의 수입을 확실하게 제고시켰다. 오늘날 훈춘시 양봉산업은 국내에서 꽤 이름 있는 훈춘 특색꿀 우수 브랜드를 구축해냈다. 그간 주체는 훈춘시농촌전문기술협회리합회 리사장으로 추대되었고 길림성 ‘농민기예장인’으로

당선되었으며 그가 이끄는 주씨양봉합작사는 훈춘시흑벌과학기술보급교학 실천기지로서 지정되었다. “올해 우리는 연변대학과 공동으로 과학기술뜨락을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연구생을 이곳에 파견해 실험하게 하는데 이는 합작사가 현대화 양봉을 향해 확실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말해준다.”면서 주체는 디지털화 시대에 자신도 디지털화 방향으로 전환하여 훈춘 양봉산업의 브랜드를 더 경쟁하게 키움으로써 향촌 진흥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변뉴스넷